독재자 히틀러는 적대국 음료 코카콜라 마니아였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교황이 세례한 사탄의 음료 커피, 땀의 역사 게토레이 등
음료의, 음료에 의한, 음료를 위한 이야기
인간의 삶과 역사는 '마시는 일' 사이서 일어난 기록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음료를 찾는데 인간의 역사는 '마시는 일'과 '마시는 일' 사이에 일어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사진은 다양한 음료를 형상화한 일러스트레이션. 〈광주일보 자료〉

마시는 즐거움

마시즘 지음

'OK'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한가지 힌트를 준다면 마시는 것이다. 까만색이며 톡 쏘는 맛이 있다. 그렇다. '코카콜라'다.

코카콜라가 지금처럼 세계 각국에 퍼지게 된 계기는 2차 대전이었다. 당시 사령관은 아이젠하워. 후일 미국 대통령이 된 그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콜라를 외쳤던 일화가 있다.

"1943년 북아프리카에서 연합군을 지휘하고 있던 아이젠하워는 본부에 긴급한 전보를 부친다. '이곳에는 콜라……코카콜라가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은 코카콜라가 군인 할인을 적용하던 시기였다. 코카콜라의 회장 로버트 우드러프는 "군복만 입고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계 어디든 콜라 한 병에 5센트에 판매"라고 발표했다. 콜라덕후인 아이젠하워가 그 기회를 놓칠 리 만무했다."

사람들은 기름기 있는 식사를 하고 나면 뭔가 마시고 싶어진다. 커피든, 음료든, 물이든 아니면 맥주든 더부룩한 느낌을 지울 수 있는 것이면 된다. 저마다 기호나 욕구에 따라 음료가 결정된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음료를 찾는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이유도 각기 다르다. 가격, 맛, 청량감 등등….

다양한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묶은 책이 발간됐다. "음료의, 음료에 의한, 음료를 위한 이야기"를 담은 '마시는 즐거움'이 바로 그것. 음료 미디어인 '마시즘'이 펴낸 책은 음료에 대한 감춰진 이색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의 시작은 지난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시즘의 음료 리뷰가 이때 시작됐는데 당시 대선 정국에서 후보 포스터를 음료수로 패러디한 '음료 대선'이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음료 마니아들에게 필독서로 자리잡았다.

이후 마시즘 콘텐츠에 매료된 독자들 가운데는 '마시즘이 이 정도는 다루어야 하지 않나요'라면서 제보를 하거나, 해외에서 구하기 힘든 음료를 전달해준 이도 있었다. 이들 음료의 이면에는 나름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역사적인 사건에서부터 개인적인 추억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는 이유와 취향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저자에 따르면 16세기 로마에 흘러든 이슬람 전유물인 커피는 당시 '악마의 음료'로 인식됐다. 당시 교황에게 사악한 커피를 금지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금지 여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맛을 본 교황은 맛과 향에 완전히 매료됐다. "어째서 사탄의 음료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교황은 "당장 커피에 세례를 내려 사탄을 쫓아내고 이를 진정한 기독교의 음료로 명할지어다"고 판결했다.

독재자 히틀러가 코카콜라 마니아였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그가 총통으로 재직하던 시절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코카콜라 소비량이 많았다.

"히틀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건설 공장을 많이 세웠는데, 그중엔 코카콜라 생산 시설이 있었다. 덕분에 코카콜라는 독일인들이 좋아하는 음료수가 되었고, 히틀러 역시 코카콜라의 매력에 빠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이다. 문제는 참전한 미국의 적이 바로 독일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커피와 코카콜라 외에도 게토레이, 맥주, 오란씨, 써니텐 등을 둘러싼 이야기도 특이하다.

저자는 "땀의 역사가 게토레이의 역사"라고 설명한다. 1965년 무더위로 대학미식축구팀 '플로리다 게이터스' 신입생들이 입원을 하게 된다. 로버트 케이드 박사는 '땀에 있는 각종 염류는 몸이 균형을 맞춰준다. 그렇다면 마시는 음료에 염류를 넣어 물보다 빠르게 흡수시키면 어떨까?'라는 의문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게토레이가 태어났다. 기능성 음료 덕분에 이듬해 플로리다 게이터스는 역대급 성적을 거두게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은 결국 파티와 토론, 전쟁, 우주여행 등 수많은 상황에서 '한 잔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은 인물들의 이야기"라며 "인간의 삶과 역사란 '마시는 일'과 '마시는 일' 사이에 일어난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한다.

〈인물과사상사·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주일 김려령 지음

결혼 생활에 각자 '실패'를 경험한 두 사람이 우연한 계기로 여행지에서 함께 일주일을 보낸다. 힘겨운 일상에서 탈피해 한숨을 돌리기 위해 찾은 이스탄불에서 두 남녀가 만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행복한 일주일을 함께 보내고 조용히 헤어진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함을 아는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묻지 않는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도연과 유철은 작가와 국회의원 모습으로 우연히 마주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다시 시작된다.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 등으로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작가 김려령이 장편소설 '일주일'로 돌아왔다. 김려령 특유의 에너지로 사랑과 결혼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펼쳐낸다.

다시 만난 도연과 유철은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가지만 뜻밖에 암초에 부딪힌다. 다름 아닌 유철의 전처인 정희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한다. 유철과 도연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비참함을 느낀 정희는 둘의 사랑을 깨뜨리기로 마음먹고 언론을 이용해 두 사람의 만남을 불륜으로 매도한다. 안타깝게도 이스탄불에서의 행복했던 일주일이 도연과 유철에게는 덫이 되어 돌아온다. 당시 유철은 정희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 직전에 이를 만큼 헝클어진 상태였다.

사랑은 속박과 자유를 동시에 욕망하는 사랑의 양면성을 능수능란하게 풀어낸다. '이야기'를 읽는 통쾌함을 선사하면서 독자에게 사랑의 강도와 거리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세 인물이 묶였다 풀렸다 하며 긴장감 넘치게 전개되는 이야기는 독자를 강하게 끌어당긴다. 인물들의 개성 강한 내레이션이 지문 사이사이 침투하는 독특한 구성은 읽는 재미와 아울러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창비·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들러 삶의 의미 알드레이 아들러 지음, 최호영 옮김

세계 심리학의 3대 거장이자 개인심리학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쓴 마지막 노작 '아들러 삶의 의미'가 발간됐다. 책은 아들러의 마지막 대작으로 타인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려는 공동체 감정의 진정한 의미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역할을 돌아보게 한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다. 아들러는 공동체 감정(공동체 의식)을 삶의 과제로 꼽는다.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정당한 공동체 감정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 열등감, 고독감, 우울, 신경증, 정신병, 중독이나 범죄 같은 문제도 공동체 감정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적응 현상이다. 타인의 삶에 대한 유대감, 협력과 공생 능력 등이 결여될 경우 온갖 형태의 열등감과 현실을 외면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들러는 책에서 '일, 사랑, 공동체(관계)'를 삶의 3대 과제로 꼽는다. 인간의 삶은 노동 분업과 충분한 변신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노동'은 인간이 '공동체'에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랑'은 인류의 번식에 기여한다는 과제 외에도 인류의 안녕에 이바지하는 감정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 세 과제는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잘 녹여 낸 사람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아들러는 인류의 안녕은 개개인이 지금보다 더 공동체를 위한 일부가 될 때 의미 있는 삶이 충족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시에 세계의 불행, 어려움, 불만, 시련, 위험 등에 대한 관심을 지닐 때 인간의 삶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을유문화사·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윈이 자기 계발서를 쓴다면 테리 버넘 외 지음, 장원철 옮김

지난 20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845개 도서관에서 비문학 인기대출도서 중 20대가 가장 많이 빌린 책 장르는 심리학, 그리고 자기계발서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자기계발서는 의지, 노력, 열정, 꿈과 같이 두루뭉술한 단어로 모호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감성적인 위로와 위안을 주는 수준에서 그치곤 한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테리 버넘과 진화생물학 박사 제이 펠런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해 쓴 과학적 자기계발서 '다윈이 자기계발서를 쓴다면'을 펴냈다. 인간관계, 건강, 공부, 재테크, 사랑, 행복 등 10가지 주제를 선별해 삶을 성공적으로 가꿔나가는 법을 탐색하는 책이다.

두 저자는 하버드대에서 진화론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던 중 학생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성공적인 자기계발을 위해서 우리 안의 본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류에게 현대적 삶이 주어진 것은 불과 수백년에 불과하지만, 앞서 수백만년 동안 수렵·채집하던 시절의 본능이 뇌와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이 본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힘을 역이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 '행복'에 대해 정의내리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제시한다. 위험을 즐기고 중독에 빠지는 인간의 심리도 함께 파헤친다. 2장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등 각종 집단과의 인간관계를 분석하고, 인종차별, 예절, 선물 등 갈등과 협력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알아본다. 3장은 재테크나 다이어트의 성패를 가르는 원인들과 해결책으로 채웠고, 마지막 4장에서 남녀의 차이를 분석하고 남녀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을 파헤친다. 〈스몰빅라이프·1만6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